

(필리핀) 10월 현지 관광정책 및 시장동향

'26. 10. 29(목) / 마닐라지사

- ◆ 필리핀 관광부, 2027년 예산에 관광 홍보·브랜딩 투자 확대 추진
- ◆ 필리핀 물가상승 압력 확대, 해외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우려
- ◆ 필리핀항공, 동계 시즌 국제노선 운항 확대
- ◆ 제주항공, 한국-필리핀간 직항노선 확대
-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일반 사증 지정여행사 재선정 완료 등
- ◆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증가세 지속

1. 관광정책 동향

○ 필리핀 관광부, 2027년 예산에 관광 홍보·브랜딩 투자 확대 추진

- 필리핀 관광부(DOT)는 2027년 예산안으로 산하 기관을 포함해 약 54억 7,000만 페소 (한화 약 1,200억원)를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10억 페소를 글로벌 관광 브랜드 캠페인, 13억 7,000만 페소를 관광홍보청(Tourism Promotions Board, TPB) 예산으로 배정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논의중.
- 신임 관광부 장관 디타 앙가라-마타이는 2027년 관광정책에서 관광객 수 자체보다는 관광수입·투자·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중시하고,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과 항공 연결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히 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

○ 필리핀 물가상승 압력 확대, 해외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우려

- 필리핀 통계청(PSA)이 10월 6일 발표한 9월 물가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2%로 8월의 6.1%보다 상승. 2026년 1~9월 누적 평균 상승률은 5.4%를 기록.
- 교통 부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6%로 전월의 13.5%보다 확대됐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상승률도 6.7%로 높아짐.

- ☞ 폐소화 약세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게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여행 목적지 선택 및 상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가능성. 한국 여행상품 홍보 시 단순한 관광 콘텐츠 소개보다 항공권·숙박·관광지를 묶은 합리적인 가격의 패키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상품을 강조할 필요

2. 항공업계 동향

○ 필리핀항공, 동계 시즌 국제노선 운항 확대

- 필리핀항공(PAL)은 2026년 동계 운항 스케줄에 맞춰 마닐라발 주요 아시아 국제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 마닐라-인천 노선은 10월 27일부터 주 14회에서 주 17회로 증편하며, 마닐라-도쿄 노선 및 마닐라-오사카 노선은 일 2회에서 3회로 확대. 마닐라-상하이 노선도 10월 25일부터 주 7회에서 14회로 증편하고, 마닐라-홍콩 노선은 10월 29일부터 주 28회에서 31회로 확대할 예정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노선 확충.
- 또한, 10월 2일부터 중동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마닐라-두바이 직항 노선을 재개했으며, 10월 25일부터는 마닐라-사이판 노선 운항도 재개.

○ 제주항공, 한국-필리핀간 직항노선 확대

- 제주항공의 마닐라-부산 신규노선 취항이 확정되어 12월 17일부터 주 5회 운항예정. 해당 노선은 필리핀항공이 단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닐라-인천 노선에 비해 비싼 운임이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신규 취항으로 경쟁 확대에 따른 운임 및 상품 구성의 다변화가 예상되며 FIT관광객들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도 제주항공과 협력하여 신규취항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공동 프로모션 진행하며 신규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12월 23일부터 클락-인천노선도 주 4회 증편이 예정(잠정)되어 있어 기존 노선을 포함하면 주 11회 운항 예정. 해당 노선은 주로 한국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노선이지만 최근 클락공항을 이용하는 필리핀인도 증가추세로 아웃바운드 관광 수요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3. 여행업계 동향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일반 사증 지정여행사 재선정 완료 등

-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은 2026년 9월 29일 공지에서 비자 신청 대행사 심사를 거쳐 총 55개 업체를 지정했다고 발표. 신규 지정 업체는 10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기존 업체에서 다수의 변경이 있었고, 10월에만 2개 업체가 대행자격이 정지되는 등 대행자격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대사관의 최신 지정·정지 공지를 확인할 필요.
- 한편 단기방문 사증의 발급 처리기간이 10월 1일부터 기존 10일에서 12일로 변경. 급행신청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일 기준 5일이 소요됨.

○ 필리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증가세 지속

- 필리핀 관광부(DOT) 자료를 인용한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9월 필리핀인의 해외 출국은 약 55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폐소화 약세와 국제 정세 불안에도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중동 정세 불안과 폐소화 약세는 여행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는 필리핀 여행객들이 중동 경유 장거리 여행보다 아시아 지역의 단거리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언급.
-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상품의 경우 가을성수기를 맞아 10월에도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입국자 데이터(잠정) 상에서도 확인됨.

4. 경쟁국 동향

○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지출여력 감소로 목적지별 성장세 차별화

- 전체적인 지출 여력 감소로 동남아 인접국 위주 아웃바운드 관광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목적지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특히 가성비 위주의 여행 트렌드로 인해 베트남, 중국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홍콩, 싱가포르의 하향세가 두드러짐. 현지 여행업계는 베트남·중국의 성장 배경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 경비와 항공편 확대를 지목

※ '25년 8월 대비 '26년 8월 주요 국가 방문 필리핀 관광객 수(일본, 대만은 7월 수치)

구분	한국	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26년 8월	48,176	89,101	51,017	45,048	51,150
'25년 8월	40,847	122,548	48,159	47,366	61,460
성장률(전년比)	17.9%	-27.3%	5.9%	-4.9%	-16.8%

※ 자료 출처 : 필리핀 관광부 보도자료 등 뉴스 종합

<https://www.gmanetwork27.com/news/money/economy/1004884/inflation-snaps-four-month-easing-accelerates-to-7-2-in-september-2026/story>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10/24/2565246/no-end-sight-transport-woes/amp>

<https://pia.gov.ph/press-release/dot-charts-a-new-course-for-philippine-tourism-growth>

<https://businessmirror.com.ph/2026/10/28/vietnam-china-gain-filipino-travelers-as-hk-trips-decline>

<https://www.aeroroutes.com/eng/261022-prnw26as>

<https://www.philippineairlines.com/ph/en/newsevent-listingpage/press-releases-statements/philippine-airlines-boosts-japan-flights-adds-holiday-services-to-australia.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0733000003>

https://www.mofa.go.kr/ph-ko/brd/m_3637/view.do?seq=1344634&page=1

<https://datalab.visitkorea.or.kr/>

https://www.discoverhongkong.com/content/dam/dhk/intl/corporate/newsroom/tourism-statistics/2026/tourism_stat_08_2026.pdf

<https://stat.taiwan.net.tw/inboundSearch>

<https://statistics.jnto.go.jp/>

<https://stan.stb.gov.sg/>